

2026 KBS 방송지표

세계로 있다 내일을 밝히다

2026년, 미디어 환경은 다양한 기술과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의 흐름이 복잡해질수록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의 가치는 더 커지고 있다. KBS는 그 중심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방송이 무엇인지 고민해 방송 운영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KBS는 ‘세계를 잇는’ 공영미디어로서 국제적 소통의 역할을 지속하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이 검증된 콘텐츠를 중심으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려 한다. 다큐멘터리·교양·드라마·예능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가장 한국적인 이야기를 세계와 공유하되 공공성과 완성도를 갖춘 콘텐츠를 선별해 글로벌 유통과 연계할 계획이다. 기후 위기, 국제 갈등, 인구 변화 등 세계적 의제는 연속성을 갖춘 기획물을 제작해 국제 정보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KBS는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과 텐트폴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운

영하고자 한다. 공영방송만이 제작할 수 있는 고품질 다큐멘터리, 시대 정신을 담은 대하 사극, 공공성 높은 예능으로 콘텐츠 라인업을 구축해 KBS의 브랜드 영향력과 공영적 가치를 더욱 확고히 하겠다. 교육·돌봄·환경·노동·청년·고령층 문제 등 사회적 의제는 일회성 캠페인이나 특집에 그치지 않고 정규 편성과 지속 가능한 기획을 통해 다룰 계획이다.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은 정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선 명확한 정정 절차를 통해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아울러 KBS는 ‘내일을 밝히는’ 공영미디어로서 미래 환경에 대비하겠다. AI와 데이터 기반 기술에 의한 제작과 전달 방식의 변화를 통해 제작 효율과 공적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디지털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세대와 지역 간 정보 접근성도 강화하겠다. KBS는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하되, 그 출발점을 언제나 국민의 삶에 두고 신뢰와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박장범 KBS 사장 신년사

“AI는 KBS의 생존 전략...전사적으로 확산해야”

사랑하는 KBS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뜻한 바를 모두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KBS 구성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가적인 혼란과 격랑 속에서도 KBS는 공영방송의 사명을 잊지 않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여러분의 땀과 열정 덕분입니다.

2026년, KBS는 한 발 더 도약해 수신료의 가치를 보다 분명히 증명해야 합니다. 올해는 수신료 통합징수 효과로 경영 불안이 다소 완화되는 만큼 공영방송만이 만들 수 있는 좋은 콘텐츠로 시청자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AI 방송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올해는 AI가 일상이 되고 전사적으로 확산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라디오 프로그램과 춘천총국 TV 뉴스 등 여러 제작 현장에서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

계 사람들의 행동과 생각을 바꾸고 있는 AI는 이제 KBS의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45년 동안 동결된 월 2천5백 원의 수신료로 어떻게 KBS가 그 오랜 시간 살아남았는지, 또 어떻게 그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KBS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이를 유연하게 업무에 적용하는 내부 혁신을 통해 공영방송을 지켜왔다고 말입니다. 이런 KBS인들의 혁신 DNA가 AI와 결합한다면 올해 우리는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기술과 제도는 빠르게 변화하는 반면, KBS 일부 조직 문화는 아직 수십 년 전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냉소주의와 패배주의, 진영 논리에 갇힌 집단주의는 열심히 일하는 동료들의 도전 정신과 개인의 창의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면에 계속 ▶]

“〈뮤직뱅크〉 미국 시장 도전…올해도 신입사원 선발”

저는 특히 20~30대 젊은 동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의사소통 방식은 선배 세대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아직도 일부 조직에 남아있는 숨 막히는 기수 문화와 군대식 서열주의는 이제 변화가 필요합니다. 기수와 연차를 넘어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서로 존중하고 마음을 열어 협업할 때 우리는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선배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방송산업의 독점기와 팽창기, 이른바 좋은 시절을 보냈던 선배들이 이제는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평생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준 KBS를 위해 후배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2026년 새해는 KBS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축적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난 연말, 일본 도쿄국립경기장에서 12만 명의 관객이 KBS의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 공연에 열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전 세계 14개국 16개 도시를 돌면서 24회의 K-POP 뮤직뱅크 글로벌 공연을 성공시켜 왔습니다. 올해는 그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 도전하겠습니다. 또한 KBS가 제작하는 고품격 다큐멘터리와 드라마가 더 많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중동과 유럽 시장도 적극 공략하겠습니다.

올해 KBS는 PBI,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를 주최합니다. 전 세계 공영방송들은 문화적·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해 온 KBS의 힘과 노하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PBI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콘텐츠를 통해서도 KBS의 역량을 세계에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어 갑시다. 공영방



송 KBS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공영방송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곧 51기 신입사원들이 현장에 배치됩니다. 지난해 약속드렸던 신입사원 채용을 차질 없이 지킬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신입사원은 KBS 조직을 젊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52기 신입사원을 선발하겠습니다. 사장으로서 동료 여러분께 드린 약속은 하나하나 책임 있게 추진하고 끝까지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이 위기”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합과 가족의 가치, 세대 간 연대와 같은 공영방송만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여전히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조용필 쇼’와 같이 다른 방송사에서는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콘텐츠를 만들어낼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잘못된 경영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이유로 구성원의 정당한 보상과 사기를 훼손하고, 현장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방식의 경영은 결코

지속 가능한 KBS를 만들지 못합니다. KBS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구성원이 존중받고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을 때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성과도 함께 지켜질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는 여전히 분명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갑시다. KBS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묻고, 국민의 편에서 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새해 첫 임원회의에서 임원들과 함께 세 가지 다짐을 공유했습니다. 이 다짐은 ‘찾아가자’, ‘먼저하자’, ‘함께하자’입니다. “**찾아가자**” 우리 임원들과 선배들이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제작비가 부족할 때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고, 후배들이 애로사항을 겪을 때에도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현장으로, 사람에게로, 계속 몸을 움직이며 적극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먼저하자**” 정부 국책사업이든, 뉴스 보도든, 방송프로그램이든 먼저 시작하고 먼저 보여줍니다. KBS가 한발 앞서 선도하고, 주도하며, 이끌어간다는 인상을 시청자와 관련 기관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함께하자**” 경험상 큰 프로젝트일수록 함께할 때 결과가 좋았고 시너지도 컸습니다. 모든 직원이, 특히 선배들이 다른 본부와 센터를 수시로 오가며 만나 서로의 상황을 공유할 때 회사의 전체 역량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2026년, KBS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두 힘을 모읍시다. 다시 한번 지난 한 해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27대 한국방송공사 사장 박장범

2026년 방송 기본 방향

“AI 기술 혁신으로 미래 방송 선도…K-컬처 주도”

공공성과 신뢰를 기반으로 저널리즘의 정도를 걷는다. 6월 지방선거 보도에서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선거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한다.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분열과 갈등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각계각층이 모여 토론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예능적 형식으로 풀어낸 공론장 프로그램 〈더 로직〉 등을 통해 사회적 쟁점을 숙의하는 장을 마련한다.

AI 기술 혁신으로 미래 방송을 선도한다. AI와 XR 기술을 바탕으로 생생한 역사 현장을 구현한 〈역사스페셜-시간여행자〉를 더 확장해 다양한 역사적 순간을 입체적으로 조명한다. AI 기술이 인간의 감정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AI 휴먼 다큐멘터리 〈로봇 춘자〉, 근대사 기록물에 AI 영상 복원 기술을 접목한 특별기획 〈우리의 얼굴, 우리의 풍경〉을 통해 시청자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과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공존의 가치를 구현하며 공영방송의 사명을 완수한다. 2026년 공사 창립 대기획 〈성물〉 4부작을 통해 종교의 본질과 인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고, 신앙의 의미와 화합을 고찰한다. 희귀 야생동물 남획 실태를 고발하는 〈죽음의 비즈니스〉 2부작과 기후변화의 경고를 전하는 〈대발생-아웃브레이크〉에선 생명과 환경 위기를 성찰하고, 지구 공동체가 직면한 현실을 깊이 있게 전달하고자 한다.

국민이 하나 되는 감동의 순간, KBS가 함께 만든다. 경제적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스포츠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 야구대항전〉, 〈2026 KBO 프로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대회를 중계방송하고자 한다. 또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패럴림픽〉을 중계해 장애인 스포츠의 가치를 공고히 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대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한다.

차별화된 고품질 콘텐츠로 방송 산업의 미래를 선도한다. KBS는 올해 대하드라마 〈문무〉를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서사를 선보일 계획이다. 과학 분야에선 대형 과학 다큐멘터리 〈사이언스 워-거인의 전쟁〉을 통해 현대 문명의 발전을 이끌어 온 글로벌 과학기술의 경쟁과 협력의 역사를 탐구하고, 인류가 직면한 미래 과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한다.

글로벌 타깃형 콘텐츠 제작으로 K-컬처를 주도한다. K-Pop 분야에서는 〈뮤직뱅크 in Lima〉(2026년 4월), 〈뮤직뱅크 in Barcelona〉(9월), 〈뮤직뱅크 글로벌 페스티벌〉(일본, 12월) 등 남미와 유럽, 일본을 잇는 월드 투어를 개최해 글로벌 K-컬처 확산을 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ROUND〉를 중심으로 올해 필리핀 공연과 함께 동남아 시장과의 문화적 교류를 확대한다.



새롭게 돌아온 '같이 살이'

‘싱글맘’ 리얼리티 성장 예능



영원한 미녀 아이콘 '황신혜', 미스코리아계 전설 '장윤정', 만능 엔터테이너 '정가은'. 서로 다른 세 사람이 '싱글맘'이라는 공통 분모로 뭉쳤다! 전 시즌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가 실버세대의 삶을 담아냈다면, <황신혜의 같이 삽시다>는 홀로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의 애환을 그린다. '큰언니'인 배우 황신혜는 특별한 합숙을 이끄는 호스트이자 든든한 멘토로 활약을 예고했다. 첫 고정 예능에 도전하는 장윤정은 '찐 살림꾼'으로, '에너자이저 막내' 정가은은 열혈 워킹맘 캐릭터로 시청자를 만난다. 1월 6일(화)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세 사람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최강 케미를 뽐냈다. 다음은 취재진과 나눈 일문일답.

Q 출연을 결심한 계기는?

황신혜 나이가 들어가니까 겁이 없어지는 것 같다. 제가 살면서 겪어온 실패와 경험, 연륜과 지혜, 인생 이야기를 큰언니 느낌으로 풀어볼 수 있겠다는 여유가 생겼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편안하게 해보려 한다.

장윤정 그동안 너무 숨어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싱글맘이 부끄러운 게 아닌데 위축되어 살아왔다. 두 딸에게 건강하고 씩씩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출연을 결심했다. 편한 옆집 언니처럼 시청자에게 다가가고 싶다.

정가은 '주어지는 일은 무조건 한다'는 마음이다.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그 마음이 더 강해졌다.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더군다나 황신혜, 장윤정 언니와 함께한다는 사실에 '나 용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웃음)

Q 자녀들 반응은 어땠나?

황신혜 딸이 '너무 잘 어울리겠다'고 하더라. 응원을 많이 해줬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첫 방송 때는 아무 약속도 안잡고 본방 사수하겠다고 했다.

장윤정 큰딸은 '진짜? 엄마가?' 하면서 놀랐고, 둘째는 '잘해봐!'라며 응원했다. 엄마가 다시 TV에 나온다고 하니 딸들이 너무 좋아했다.

정가은 딸이 아직 11살이라 잘 모르는데, 엄마가 TV에 나오는 게 좋은 것 같다. 거실에서 '야호!'하며 뛰어다녔다. 어머니는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를 즐겨보셨기 때문에 '네가 그걸 한다고?'하며 좋아하셨다.

Q 출연진의 장점을 짚어본다면?

이선희 PD 세 분 모두 위로 엄마, 아래로는 딸이 있는 것이 공통점이다. 중장년층 이상의 시청층이 공감할 수 있는 '엄마와 딸'이란 요소 뿐만 아니라 젊고 건강하게 열심히 사는 트렌디한 모습은 3059 시청자도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어 확장성을 가진 출연진이라 생각한다.

Q 처음 이미지와 달라진 사람은?

정가은 신혜 언니한테 농담 한마디라도 던질 수 있을지 내심 걱정했는데 의외로 오빠같은 매력이 있다. 저를 굉장히 많이 놀리는데, 그 안에 애정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다.

장윤정 신혜 언니 안에는 '아저씨'가 있다. 너무 털털하고, 한다고 하면 바로 직진하는 스타일이라 그만큼 의지하고 싶은 언니다.

Q 시청자에게 전하는 한마디는?

이선희 PD 4인용 식탁이 있다면 출연자 세 명 외 나머지 하나는 시청자를 위한 자리다. 방송을 보면서 함께하는 것 같은 위안과 따뜻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황신혜 셋이 함께 지낸 시간이 길지 않지만, 서로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이 공감하고, 배우고, 조금이라도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

7일(수) <황신혜의 같이 삽시다> 첫 방송에선 매력적인 그녀들의 첫 합숙이 공개됐다. 황신혜는 환영 파티로 동생들을 맞이했고, '딸 토크'를 하며 세 엄마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한밤중엔 딸들의 손 편지가 깜짝선물로 전달돼 웃음과 감동을 안겼다.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40분 **KBS11**

100인이 펼치는 서바이벌 논리 전쟁



여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리한 논리를 가진 100인이 모였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한의사 등 '사'자 직업을 가진 전문직부터 아이돌, 배우, 모델, 아나운서, 개그맨 등 셀럽들까지 '로직 시티'에 발을 들인 참가자 100인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의제를 놓고 2박 3일 동안 사상 최대의 서바이벌 논리 대결을 펼친다. 라운드마다 토론 게임을 통해 '로직 코인'을 쌓고, 상대의 논리를 깨부수며 최종 토론장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불꽃 튀는 경쟁을 펼친다. 참가자들은 오로지 감정이 아닌 '말과 논리'로만 상대를 설득해야 한다. 순식간에 판세가 바뀌는 말의 전장에서 예상치 못한 논리 한 방에 강자가 무너지고, 약자가 역전한다. 시청자들은 100인의 생각이 충돌하고 뒤집히는 과정을 가감 없이,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다.



어떤 의제가 주어질까. 누가 설득하고, 누가 설득당할 것인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우승의 영예를 거머쥔 최후의 '로직 마스터'는 누가 될까. 2026년 1월 22일(목) 밤 9시 50분, 굳게 닫혔던 '로직 시티'의 문이 활짝 열린다.

▶ 1월 22일(목) 밤 9시 50분 첫 방송 **KBS9**



2TV 주말드라마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는 '공명정대한 의원'과 '양지바른 한의원'. 두 집안은 오래전 사건으로 3대째 원한을 품고 싸워왔다. 30년 넘게 악연으로 얽힌 이들이 '사랑'을 처방받아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KBS 2TV 새 주말드라마 <사랑을 처방해 드립니다>가 1월 31일(토) 저녁 8시 안방극장을 찾는다. <진짜가 나타났다!>,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등 감각적인 연출을 보여준 한준서 PD와 <옥씨부인전>, <영클>

등으로 탄탄한 집필력을 인정받은 박지숙 작가가 의기투합했다.

철천지원수인 양가의 '로미오와 줄리엣'은 배우 박기웅과 진세연이 맡았다. 진세연은 '의사'라는 가업을 거부하고 자신의 꿈을 좇는 당찬 의류 디자이너 '공주아'를 연기한다. 박기웅은 실력과 브랜드 디렉터 '양현빈' 역을 맡았다. 여유와 유머를 겸비한 매력적인 인물로 어린 시절 첫사랑인 공주아를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다. 검증된 배우 김승수와 김형묵이 양가 아버지로 등장, 시장 상인회장 선거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예고했고, 배우 유호정, 김미숙, 소이현, 주진모 등 중견 배우들이 합류해 극에 활력을 더한다.

한준서 PD는 "사소한 일도 크게 키워 싸워대는 두 집안의 이야기가 큰 웃음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철천지원수인 두 가문 사이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첫사랑 상대를 다시 마주한 주인공들의 운명적 로맨스가 웃음 속의 감동을 책임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출연진은 "무해한 작품", "마음 따뜻해지는 드라마", "저절로 웃음이 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앞서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두 집안이 원수가 된 사연의 실마리가 드러나며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 1월 31일(토) 저녁 8시 첫 방송 **KBS2**

'개콘'이 낳은 복덩이 **말자쇼**



웃음, 공감, 위로 모두 다 드립니다. '말자 할매'를 찾아주세요! 세대 공감 소통 활극 <말자쇼>가 1월 19일(월)부터 매주 월요일 밤 10시 시청자와 만나다.

<말자쇼>는 코미디언 김영희와 정범균을 주축으로 하는 <개그콘서트> 인기 코너 '소통왕 말자 할매'가 모태다. 개그콘서트 코너에서 스펀오프 예능으로 확장한 최초의 사례로, 세 번의 파일럿 방송이 시청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말자 할매' 김영희는 진로, 연애, 육아 등 관객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즉석에서 해결해 주는데, 본인의 경험을 녹여 유쾌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건넨다. 시청자들은 "말자 할매 덕분에 울고 웃고 힐링한다.", "최고의 인생 강의"라며 호응했고, 정규 편성 소식에 "계속 볼 수 있어 기쁘다.", "장수 프로그램 기원"이라며 응원 메시지도 쏟아졌다.

연출을 맡은 문승원 PD는 "주변에서 겪은 얘기를 다루기 때문에 더 공감하며 재밌게 봐주시는 것 같다. <말자쇼>는 단순히 웃음만 선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답답한 마음을 대변하고 해소해주는 소통 창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영희 씨의 내공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 1,000명의 사람들 앞에서 다정하게 때론 호통치며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는 MC는 드물다. 앞으로도 제작진은 '말자 할매'가 활약할 수 있는 무대, 관객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주 월요일 밤 10시 **KBS2**



마에스트로 정명훈 KBS교향악단 제10대 음악감독 선임

정명훈 지휘자가 KBS교향악단 제10대 음악감독으로 선임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지휘자인 정명훈 감독은 올해 1월부터 3년간 오케스트라의 예술 운영을 총괄하며 교향악단의 예술적 비전을 이끈다. 정명훈 감독은 "음악가들을 사랑하고 돕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KBS교향악단 역시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1998년 KBS교향악단 제5대 상임지휘자를 역임했고, 2021년 최초의 계관 지휘자로 위촉되는 등 KBS와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왔다. 올해 창단 70주년을 맞은 KBS교향악단은 이번 선임에 대해 "악단의 70년 역사와 다가오는 교향악단 100년의 역사를 이을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